

사회

밭에 공동묘지 만든 장례식장

무안, 농지전용허가 없이 140기 조성 ... 강제이장 불가피

이용 고객에 부지 무료로 제공

무안의 한 장례식장 주인이 아내 소유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묘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안장된 묘가 강제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A장례식장은 지난 2006년 무안군 무안을 고절리 5952㎡ 규모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원을 조성했다. 이 부지는 A장례식장 주인 아내의 소유로 현재 140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

유권을 이전해 가면 해당 부지를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1.5m 높이의 철제 안내간판을 설치해둔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묘지 소유자들은 "불법 묘원인줄 몰랐다"며 당황해하는 반면, 일부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묘가 몇 기나 되느냐? 왜 이곳만 문제를 삼느냐"고 반발했다.

A장례식장 주인 B씨는 "지난 1월 말께 해당 묘원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 이장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권도 장인 명의로 이전했다"며 "군청에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온 만큼 기한 내에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조성된 묘지 140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원상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안군에는 군립묘지가 없어 주민들은 주로 목포 유달공원묘지(1978년 설치)를 이용하고 있다. 유달공원묘지 내 매장비용은 9.9㎡ 미만 기준 450만~460만원, 관리비는 5년 기준 6만6000원이며 현재 조성된 묘지 수는 1만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28일 무안군 무안을 고절리에 조성된 5952㎡ 크기의 불법 묘원에 이장 등을 요구하는 안내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 안내간판은 지난 1월 말께 A장례식장 주인이 설치했다.

“오토바이 날치기 조심”

광주 봉선동·신안동서 손가방 빼앗아 도주

광주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밤 11시35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현금과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이모(여·52)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같은날 밤 10시35분께도 북구 신안동 한 모텔 앞 길거리에서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현금 40여만원이 든 박모(여·22)씨의 손가방을 낚아 채 달아났다.

이들은 모두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며, 검은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장소에 인근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한편, 앞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광주지역에서 총 4건의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으나 이들은 북구와 남구 지역에서 일어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79) 김종두



중국인 명의 도용 '대포폰'

성매매 업자에 판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8일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용해 '대포폰'을 만든 뒤 이를 성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조모(42)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중국인 안모(38)씨 명의의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 1대를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업자 박모(40)씨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내·외국인 7명의 명의를 이용해 9대의 대포폰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폰을 받은 박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찍은 명함형 성매매광고 전단지 등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지난 2월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금품수수·성범죄·가혹행위 3대 비리 경찰관 신상공개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청은 28일 금품수수와 성범죄, 피의자 가혹행위 등 3대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내부 인터넷 게시판과 모든 경찰관 전자 우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내용은 비리 행위자의 이름을 뺀 성(姓)과 계급, 소속과 직책,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 징계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이 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합바) 비리" 등 최근 경찰 관련 비리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 공개

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명을 모두 공개하려 했지만 개인 인권을 고려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계급과 소속, 직책을 알린으로써 비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비리 척결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대형 비리가 터지면 어렵게 쌓아온 국민 신뢰가 단숨에 추락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행뉴스

여수 오락실 '뒷돈 경찰' 또 있었다

4500만원 받은 경위 해임 연루 전직 경찰관 3명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민철)은 2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여수경찰서 경위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여수지역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자체 감찰조사 결과 수뢰 혐의가 드러난

이씨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해임조치했다.

이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여수지역 전·현직 경찰관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최근 업주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여수경찰서 경사 신모(49)씨·경장 이모(35)씨 등 2명을 파면했다.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게임장 단속 편의를 대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2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연락 끊은 동업자 야구방망이 폭행

서부경찰, 조폭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8일 동업을 약속한 지인이 연락을 끊자 폭행한 조폭 폭력배 이모(34)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야구배트를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30)씨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자신에게 돈을 투자해 함께 사업을 꾸리기로 한 안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화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담양·해남서 산불 잇따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담양과 해남 등 전남지역 야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오전 11시께 담양군 대전면 육군 모 부대 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ha를 태우고 낮 12시 45분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담양군과 소방당국은 군부대 관계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전차 포 사격 중 포탄에 의해 화재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낮 12시50분에는 해남군 황산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2ha를 태우고 오후 2시40분께 진화됐다.

해남군과 소방당국은 입산자 실화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황주홍 강진군수 내달 1일 소환

광주경찰, 장학기금 조성 의혹 조사

황군수 "출석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

'강진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 재단 이사장인 황주홍 군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황 군수가 장학기금 조성 당시 군 소속 승진 공무원 및 군과 각종 계약 맺은 업체 324곳에 기부금(총 기부액 14억원)을 내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강진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장학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 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을 포착,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 군수 측은 다음달 1일께 경찰에 출석해 장학재단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황 군수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결백한 사안으로 인해 부하 직원(군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 군수는 또 "경찰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경찰은 장학금 조성 과정에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잡고 2차례에 걸쳐 강진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강진군은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담은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황 군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2005년 4월 8일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설립됐다. 지난달 31일 현재 장학금 조성 금액은 200억원이며, 남은 금액은 112억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